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	
후보자명	전해철	기호	2	소속정당명	민주통합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행복한 안산과 대한민국을 위한 전·해·철의 약속(1)				
<p>① 국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받는 「보편적 복지국가」 건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무상급식, 무상보육, 무상의료, 반값등록금, 일자리·주거복지 실현</li><li>-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</li><li>- 장애인 자립지원수당 지급 등 장애인 생활보장 강화</li><li>- 맞벌이 부부, 워킹맘을 위한 육아보육환경 개선</li></ul> <p>②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「경제민주화 실현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체계 추진</li><li>- 재벌개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</li><li>- 노동자의 권익 우선시하는 사회 형성</li></ul> <p>(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, 실업안전망 확충, 노사관계 개선 노력)</p> <p>③ 지역경제의 활성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사동 정비단지, 팔곡동·사사동 공업단지 활성화 지원</li><li>-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시화 멀티테크노밸리(MTV) 성공적 조성 지원</li><li>- 지역상권 활성화 및 중소기업보호 육성</li></ul> <p>④ 시화블루벨트 전략 추진으로 문화관광벨트 건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대부도, 시화호 등 천혜의 자원 갖춘 해양생태녹색관광도시 추진</li><li>- 갈대습지공원, 사동90블럭 복합단지, 사리포구 등 수변벨트 조성</li></ul> <p>⑤ 주민들을 위한 복지·체육·문화시설 및 휴식공간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수인선 지하화 추진으로 확보된 지상부지(약 167,500㎡) 시민공원 조성</li><li>- 쓰레기 매립장(약 490,000㎡)의 생활체육문화시설 조성</li><li>- 반월동에 복지·체육·문화 복합센터 건립</li></ul>					



공약번호: 3	공약 제목 : 국민 모두가 복지서비스를 받는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
	<p>○ 우리 사회는 현 상황에 알맞은 경제와 복지정책이 함께 가는 보편적복지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세밀한 사회적 복지시스템 설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나라 복지조세 부담률 : OECD 평균 25.8%에 한참 못미치는 19.8%에 불과</li> <li>- 우리나라 복지예산 : OECD 평균인 21%의 3분의 1 수준으로 멕시코 이어 최하위</li> </ul> <p>○ 민주당통합당의 보편적복지는 빈곤층, 장애인, 실업자,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, 무상급식, 무상보육, 무상의료, 반값등록금, 일자리복지, 주거복지 등 &lt;보편적복지 3+3&gt;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상급식 :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</li> <li>- 무상보육 : 단계적으로 만5세이하 어린이집?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비용 전액 지원, 국공립 보육교육시설 확충,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통한 보육서비스질 제고</li> <li>- 무상의료 :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90%(현재 약62%)까지 건강보험부담률 높이고 환자본인 부담상한을 연간 100만원까지 제한, 환자간병비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,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선진국형 의료체계 확립 위한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</li> <li>- 반값등록금 : 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%까지 인하하고 대학구조 개혁 추진</li> <li>- 일자리복지 : 고용률을 63.8%(2011년)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수준인 70%로 제고하고 현재 22% 수준인 청년실질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(실근로시간 단축하여 신규일자리 창출,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도입,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,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연계 등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)</li> <li>- 주거복지 : 부동산투기 근절하고 주거문화를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전환, 집권 5년 동안에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 이상 확충, 전월세상한제를 도입,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5%수준(현재 6.2%)으로 확충하여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,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</li> </ul> <p>○ 보편적복지 재원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신설 없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재정개혁(12.3조원), 복지개혁(6.4조원), 조세개혁(14.2조원) 등 3대개혁 통해 조달할 것입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대개혁 통한 연평균 추가 가용재원 : 33조원</li> <li>( 3+1 정책 시행을 위한 연평균 소요재원 : 17조원)</li> <li>(일자리? 주거복지,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소요재원 : 16조원)</li> </ul>

공약번호: 4	공약 제목 : 지역경제 활성화 :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경쟁력 강화
<p>○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중소기업 단지로 안산과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경쟁력 하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.</p> <p>○ 중앙 정부·경기도·안산시·시흥시에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및 노후화된 기반시설 재정비에 대한 논의와 법적(산집법/산업법)·제도적 장치,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.</p> <p>※산집법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), 산업법(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)</p> <p>○ 개선방안 ① : 고부가가치산업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세중소기업 중심에서 첨단 부품소재산업 등 구조고도화 이끌어갈 만한 핵심 선도사업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재 20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업체수의 80% 이상 차지</li> <li>-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및 산업구조고도화 위해 신산업육성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</li> <li>○ 기업경쟁력 향상한 비즈니스 지원시설 확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향후 소사-원시선, 신안산선 개통(2018년)되면, 반월단지 내 원시역, 원곡역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전망, 복합비즈니스 단지 조성 검토</li> </ul> </li> <li>○ 창의적 생산활동과 고급인력 유치 위한 지원기능 마련</li> </ul> </li> <li>○ 구조고도화의 관리체계 개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토해양부(지정권자), 지식경제부(관리권자), 지방정부 등 3중 관리체제로 인한 분산 문제</li> </ul> </li> </ul> <p>○ 개선방안 ② :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법안(산집법)이 마련(2010.4) 되었으나 지원예산 확보가 미진하고, 수혜자 투자원칙으로 사업이 진행</li> <li>○ 조성 후 30여년 경과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 낙후, 교통정체 문제 등 입주기업 개선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로포장 및 보도정비나 가로등·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</li> <li>- 입주기업체와 근로자 급증에 따른 주차장 확보사업</li> <li>○ 산업단지 내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은 지자체이나 재정능력 취약으로 실질적인 지원에는 역부족</li> </ul> </li> </ul>	
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수인선 완전지하화로 조성되는 부지와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·문화공간으로 조성
<p>○ 수인선 완전지하화를 통해 조성되는 지상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인선은 지난 20여년간의 산고 끝에 작년에 착공되었지만 반지하 방식으로 도시가 동서로 양분되고,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, 황토십리길의 주변 녹지가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.</li> <li>- 저는 민주통합당 상록구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안산시장, 시도의원, 주민과 지혜를 모아 정책설명회와 당정협의회 개최, 지하화 추진 주민서명운동을 벌이며 안산시 도심구간 약 2km에 대해 완전지하화 하는 최종방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.</li> <li>- 이러한 성과로 현재 안산시와 철도공단이 완전지하화 협약을 맺고, 지하공사 추가구간에 대한 설계작업이 50%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 또한 조성되는 지상부지(약16만㎡) 활용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, 오는 4월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완전지하화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</li> <li>-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, 2016년 수인선 전철이 완공될 때까지 정부와 안산시의 공사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 안산의 100년 후를 내다보며 후대들에게 보다 쾌적한 전철과 아름다운 공원녹지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.</li> </ul> <p>○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 위한 활용방안 모색과 안산의 장기적 발전과 연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주통합당 상록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&lt;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 모색 정책간담회&gt;를 개최하였습니다.</li> <li>- 안산 시민들은 지난 20년간 경기도 8개 지자체의 생활쓰레기가 버려진 쓰레기 매립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. 쓰레기 매립장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지만 사후관리가 종료되는 2014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. 또한 경기도의 일방적인 국제항공전 대체부지 검토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되어서도 안됩니다.</li> <li>- 경기도내 사용 종료된 쓰레기 매립장 30곳의 활용실태를 봐도 안산, 용인, 남양주 3곳을 제외한 27곳 모두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체육문화시설, 시민공원 및 도립공원 조성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.</li> <li>- 나아가 15만평이나 되는 넓은 쓰레기 매립장을 향후 인근의 갈대습지공원, 시화호, 대부도, 사동90블럭, 시화MTV 등과 연계한다면,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.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활용 방안 모색 뿐 아니라 안산의 미래와 연계한 장기적인 청사진도 함께 만들어 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.</li> </ul>	